동아일보 사내보

東友

【 社是 】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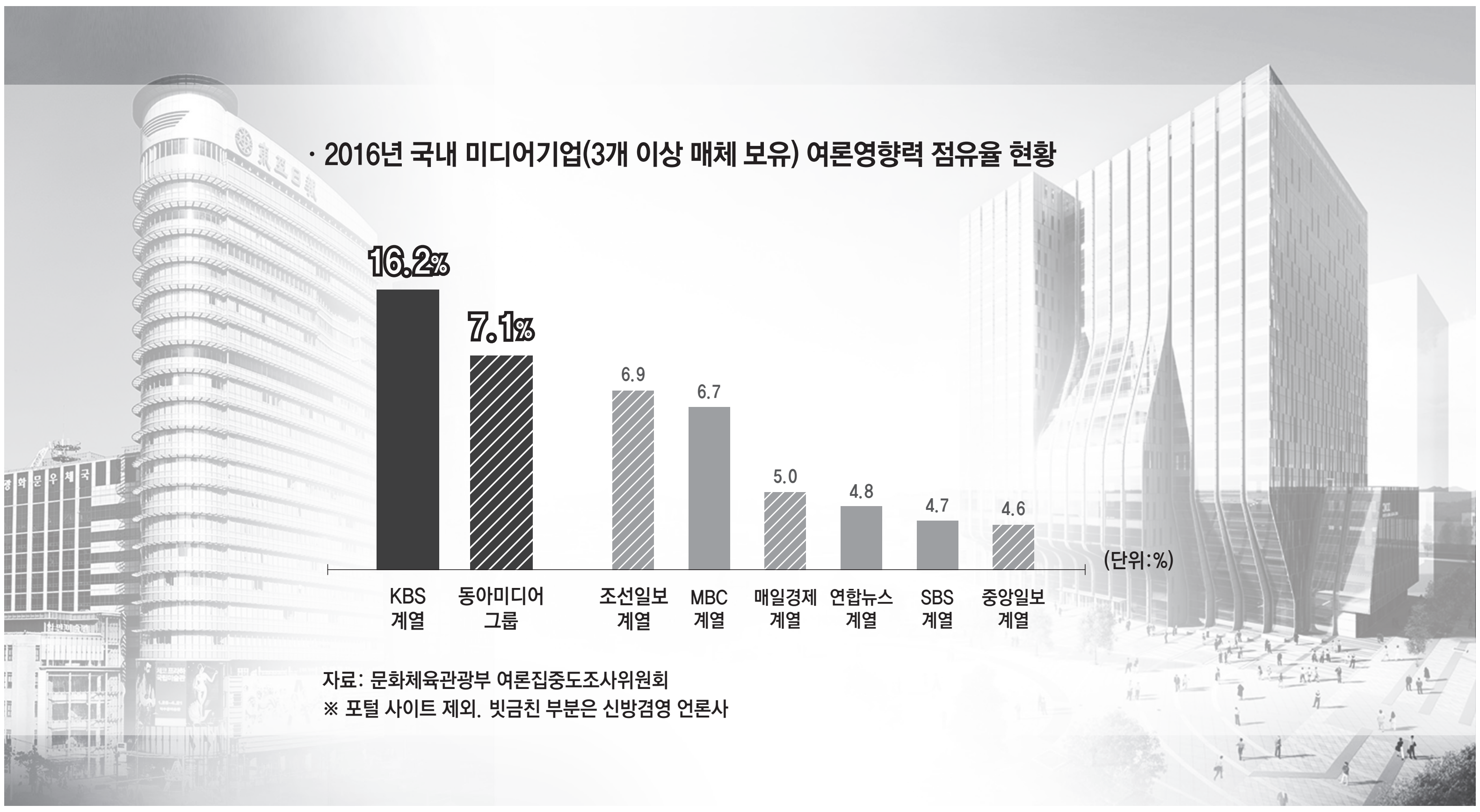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제215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권혜정(동아PDS)
김민지(동아E&D)
김석호(마케팅본부)
김영환(AD본부)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구희언(출판국)
남형주(재경국)
박형순(동아애드넷)
빈정훈(동아MD)
양형모(스포츠동아)
유성열(편집국)
이정아(동아사이언스)
이종원(문화사업본부)
이태윤(동아이지에듀)
정기상(동아닷컴)
정소림(경영지원국)
조현상(동아프린테크)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동아미디어그룹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2016년 뉴스이용창구 기준 여론영향력 점유율' 조사에서 신방겸영 언론사 중 1위를 차지했다. 포털 사이트를 제외하면 KBS에 이어 전체 2위에 해당한다.

동아미디어그룹 '여론 영향력' 강자로 우뚝

'동아일보-채널A-동아닷컴' 신방겸영 언론사 중 1위
MBC-SBS 2년 전부터 앞서… 통합뉴스룸 저력 보여줘

동아미디어그룹이 2016년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에서 신방겸영 언론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 계열은 물론 지상파 방송인 MBC·SBS 계열보다도 여론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과 방송이 함께 하는 통합뉴스룸의 저력이 발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 여론영향력 7.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2016년 뉴스이용창구 기준 여론영향력 점유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아일보, 채널A, 동아닷컴 등을 포함한 동아미디어그룹의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7.1%로 나타났다. 이는 신방겸영 언론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조선닷컴을 소유한 조선일보 계열의 여론영향력은 6.9%에 그쳤다. 매일경제 계열(5.0%), 중앙일보 계열(4.6%)의 영향력은 동아미디어그룹과 비교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여론영향력 점유율 전체 순위는 4위이지만,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를 제외하면 종이신문-TV-라디오-인터넷 중 3개 이상 매체를 보유한 미디어그룹 중에선 KBS 계열(16.2%)에 이어 전체 2위에 해당한다. 특히 2015년에 이어 2016년 조사에서도 동아미디어그룹이 지상파 방송인 MBC 계열(6.7%)과 SBS 계열(4.7%)을 앞선 것으로 조사돼 KBS와 함께 '대한민국 빅2'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

여론영향력 점유율 상승폭도 동아미디어그룹이 가장 컸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2014년 6.2%에서 2016년 7.1%로 0.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KBS 계열은 18.8%에서 16.2%로 2.6%포인트, 조선일보 계열은 9.0%에서 6.9%로 2.1%포인트 하락했다. MBC 계열은 7.2%에서 6.7%, SBS 계열도 6.5%에서 4.7%로 각각 떨어졌다. 중앙일보는 4.2%에서 4.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균형감 갖춘 동아의 여론영향력

동아미디어그룹 여론영향력이 높게 나온 것은 동아일보, 채널A, 동아닷컴 등 동아미디어그룹 매체들이 사용자들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ABC협회가 6월 2일 발표한 '2017년(2016년분) 일간신문 발행 및 유료부수 인증결과'에 따르면, 동아일보(72만9414부)는 유료부수에서 조선일보(125만4297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와의 유료부수 격차는 2013년 이후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독자들이 가정에서 동아일보를 구독하거나 가판에서 직접 동아일보를 구입한 부수는 중앙일보보다 9만 부 가량 더 많다. 동아일보를 신뢰해 찾아보는 독자 수가 그 만큼 더 많다는 의미다.

채널A는 지난해 총선과 탄핵 국면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여론을 주도했다. 여기에 전반적인 종편의 영향력 확대도 한몫을 했다. 여론영향력 측정시 신문보다 3~5배 더 큰 가중치가 적용되는 TV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용점유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종편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아닷컴은 깊이 있고 정확한 뉴스를 인터넷 및 모바일 공간에서 제공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 등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한 결과, 지난해 모바일 기준 페이지뷰는 1억337만 뷰로 미디어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출범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여론영향력 점유율을 조사해 3년에 한 번씩 공식 보고서를 낸다. 여론영향력 점유율은 뉴스 및 시사보도 콘텐츠에 대한 신문 열독률(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TV 이용시간(닐슨컴퍼니코리아 TV시청률 조사), 라디오 청취율(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인터넷 체류시간(닐슨코리안클릭의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각 매체별 영향력 가중치를 곱해서 합산한다. 매체별 영향력 가중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용율을 분석해 산정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손영일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仁村, 그 큰 뜻을 기립니다"

제31회 인촌상 시상식 10월 11일 열려
교육-언론문화-인문사회-과학기술 4개 분야 시상

사진=편집국 사진부 박영대

10월 11일 열린 '제31회 인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강효 줄리아드음악원 교수, 이상섭 연세대 명예교수를 대신해 참석한 부인 김정매 동국대 명예교수, 김종승 고려대 교수,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1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털볼룸에서 열렸다. 수상자로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97·교육) △강효 줄리아드음악원 교수(73·언론/문화) △이상섭 연세대 명예교수(80·인문/사회) △김종승 고려대 교수(54·과학/기술)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각각 상패와 기념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교육자로 헌신하며 수많은 후학을 길러 온 김형석 교수는 인촌 선생을 평생의 스승으로 꼽는다. 김 교수는 1947~1954년 서울 중앙중고교에서 교사와 교감으로 재직하며 인촌 선생을 가까이에서 모셨다. 그는 시상식에서 "6·25 전쟁 시절 병상에서 일어나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인촌 선생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마음으로 가까이 모셨던 선생이 직접 상을 주시는 듯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상식은 사제간의 아름다운 인연이 유난히 돋보이는 자리였다. 또 다른 수상자인 이상섭 교수가 바로 김형석 교수가 연세대 문과대에서 가르친 제자였던 것. 이 교수는 우리말 의미를 잘 살린 '문학비평용어사전'을 편찬했고, '연세한국어사전'을 발간해 우리말 활용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강효 교수는 40여 년간 바이올린 연주자, 교육자, 예술감독의 길을 걸으며 '바이올린계의 스승'으로 불린다. 암 표적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공로로 수상한 김종승 교수는 "과학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축사에서 "수상자들은 공선사후(公先私後), 신의일관(信義一貫)으로 헌신한 인촌 선생의 유지를 이어 더욱 성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편집국 문화부 조종엽

'동아'의 이름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동아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에서 신방겸영 언론사 중 1위에 올랐고,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선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동아의 따뜻함도 빛을 발했습니다. 공선사후(公先私後)를 실천한 이들을 예우하는 인촌상은 31번째 수상자를 배출했고, '리스타트 잡페어' '창농열차'에선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10월을 힘차게 달린 동아마라톤처럼, 동아는 계속 달려나갈 것입니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유행어가 된 "어·우·동" … 동아일보 기협축구 2년 연속 우승

〈어차피 우승은 동아일보〉

"팀워크의 힘" 통산 네 번째 제패
사장 이하 임직원 똘똘 뭉쳐 응원
"동아미디어그룹 전체의 승리"

사진=편집국 사진부 변영욱

동아일보 축구팀이 10월 28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구장에서 열린 제45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축구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뒤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1972년, 2011년, 2016년에 이어 통산 4번째 정상에 올랐다.

동아일보가 제45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로, 통산 4회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 대회 우승으로 1번 시드를 받아 첫 경기를 부전승으로 올라간 동아일보는 21일 32강전에서 스포츠서울을, 22일 16강전에서 한겨레를 꺾고 8강에 올랐다. 이어 28일에는 8강(뉴스1), 4강(한국경제), 결승(서울경제)에서 내리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특히 32강전부터 결승전까지 한골도 허용하지 않고, 모두 필드골로 승리했기에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은 우승이었다.

유재영 기자는 득점왕(5골)을, 결승전 결승골을 넣은 김성모 기자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또 동아일보 축구팀 유동기 감독(IBK기업은행 잠실엘스지점)은 감독상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어울림누리 별무리구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은 마지막까지 일진일퇴의 공방이 펼쳐졌다. 동아일보는 전반 12분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을 김성모 기자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키며 승기를 잡았다. 서울경제는 후반전 막판 거센 반격에 나섰지만 동아일보의 철벽수비를 넘지 못했다.

한번의 패배가 곧 탈락으로 이어지는 토너먼트 경기의 특성상 모든 경기가 중요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경제와 맞붙은 4강전은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접전이었다. 경기 막판 한국경제가 결정적인 슛을 날렸지만 손용선 차장의 슈퍼 세이브로 실점을 면할 수 있었다. 역습에 나선 동아일보는 후반 11분 유재영 기자의 헤딩 결승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 전 경기 무실점
> 모두 필드골 승리

대회 2연패 영광까지는 곳곳에 고비가 적지 않았다. 팀의 정신적 지주인 양종구 기자가 연습경기에서 팔을 다쳐 수술을 하게 됐고, 철벽수비를 이끌어온 서동일 기자가 뉴스1과의 8강전에서 무릎을 다쳐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위기의 순간, 선수들은 더욱 굳건히 뭉쳐 '원팀'으로 승리를 거뒀다. 김광현 동아일보 축구단 단장(편집국 부국장)은 "동아일보, 채널A를 포함해 동아미디어그룹 전체의 승리"라고 말했다.

대회 기간 동안 김재호 사장은 물론 입사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수습기자까지 동아미디어그룹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열광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김 사장은 8강전부터 4강, 결승전을 모두 응원한 뒤 우승 뒤풀이까지 선수 및 응원단과 함께 했다. 뒤풀이 자리에서 격려금을 전달한 김 사장은 "열심히 준비해 2연패를 달성한 동아일보 축구팀이 자랑스럽다"며 "어우동(어차피 우승은 동아일보)이다. 내년에 3연패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채널A는 예선에서 일요신문을 4대 0으로 격파하는 등 한층 발전된 기량을 선보였다. 비록 16강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다음 대회에서의 활약을 기대케 했다.

동아일보 축구팀 김기용

동아일보가 우승하기까지

첫 경기	32강전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
부전승	동아일보 : 스포츠서울 4 : 0	동아일보 : 한겨레 3 : 0	동아일보 : 뉴스1 1 : 0	동아일보 : 한국경제 1 : 0	동아일보 : 서울경제 1 : 0

사진으로 보는 기협축구… 영광의 순간들

1. 치열한 몸싸움에…
2.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3. 승리를 기원하는 간절한 동아 응원단
4. 드디어 터진 골, 환호하는 선수들
5. 우승기를 흔드는 김재호 사장

(사진=편집국 사진부)

1

2

3

4

5

잡페어, 창농열차, 작은도서관… 사회와 소통하는 '따뜻한 동아'

'리스타트 잡페어' 광화문광장 132개 부스 청년구직 열풍
'청년드림 창농열차' 창농-귀농 노하우 전수, 충남서 출발
'작은도서관에 날개를' 연평도 등 오지에 책읽기 전파 1년째

동아미디어그룹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세상과 소통하는 따뜻한 모습을 통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

10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IBK기업은행 홍보부스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여성, 청년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바람은 쌀쌀했지만 몰려드는 사람들로 부스가 설치된 광장의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10월 31일, 11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7 리스타트 잡페어-함께 만드는 희망 일자리'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면서 리스타트 잡페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자리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히 일자리 소개에 그치지 않고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중장년과 여성, 청년 등 '취업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기회 제공에 공을 들였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그 결과 광화문광장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부처 등이 마련한 132개 채용 관련 부스가 세워졌다. 특히 '언더독스(경영컨설팅)'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새 동력으로 삼은 사회적 기업들도 참여해 청년 구직자들의 발길을 잡아끌었다.

'청년 창농열차' 타고 성공 귀농

청년드림센터가 10월 28, 29일 진행한 '청년 창농열차'는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50, 60대 은퇴자들의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청년에 초점을 맞춘 행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청년 창농열차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나 사업 기회를 주고, 농촌에는 젊음이라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윈-윈' 프로젝트다.

청년 창농열차 공고가 나간 뒤 청년드림센터에는 모집 대상인 만 18~39세 청년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선착순으로 50명의 참가자를 뽑는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첫 경적을 울린 1회 청년 창농열차는 충남 서천군으로 향했다. 참가자들은 서천 특산품인 소곡주를 빚는 '앉은뱅이 소곡주 공방', 지역민들끼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든 '달고개 모시마을' 등을 둘러봤다.

청년드림센터 청년 창농열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은 '열차 내 강의'와 선배 청년 농부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즉문즉답' 토크다.

청년 창농열차는 11월 18, 19일 충남 천안시로 두 번째 여정에 나선다. 청년드림센터는 두 번의 시범사업을 거친 뒤 내년에는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산간 오지에 책읽기 문화 전파

동아일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도서관에 날개를' 캠페인을 1년째 진행하고 있다. 산간 오지에 책 읽기 문화의 씨앗을 뿌린다는 취지 하에 '책 읽는 버스'를 앞세워 전국 곳곳에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기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 버스는 지난해 연평도 방문을 시작으로 부천 원종사회복지관, 평택 원정리 해군아파트 단지, 전북 완주 대덕초등학교 등을 방문했다. 장기 두고 화투 치던 공간이 캠페인을 통해 독서 공간으로 거듭났고, 군 관사는 책 읽는 병사들로 가득 찼다. 동아일보는 이런 과정을 생생하게 기사로 전달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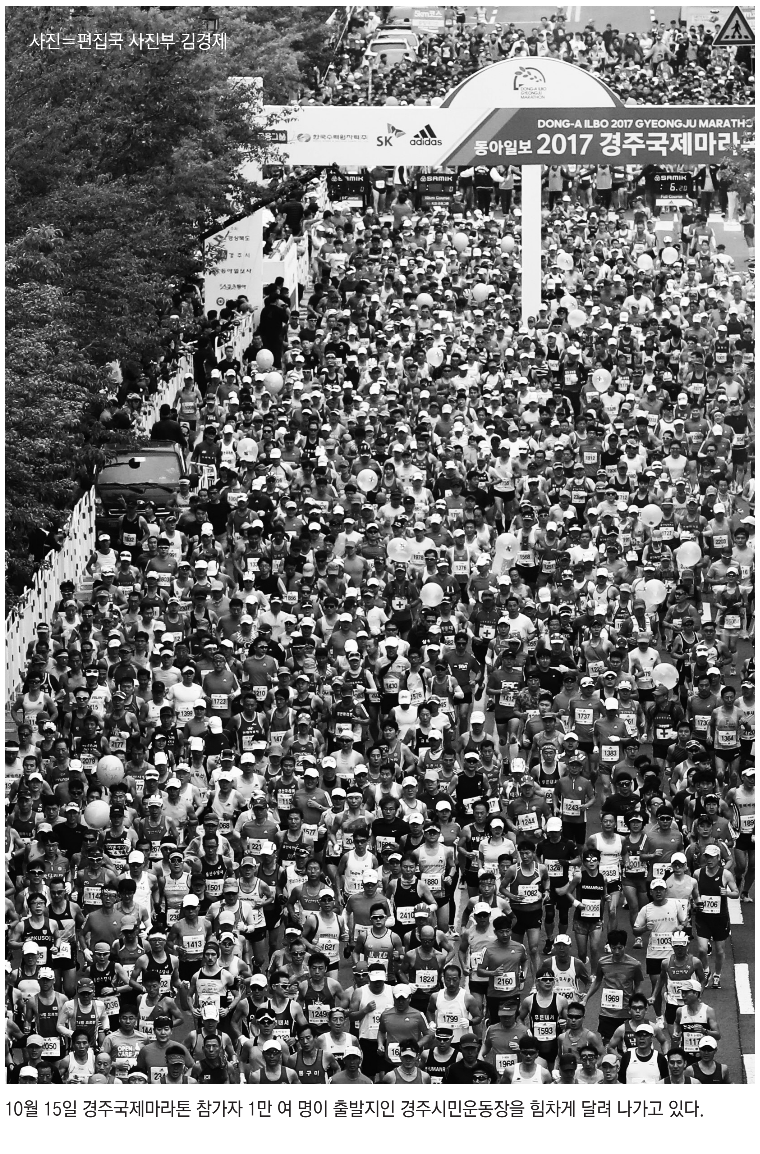
청년드림센터 청년창업팀 김창덕

편집국 문화부 손효림

시민들이 10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2017 리스타트 잡페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왼쪽). 채상헌 연암대 교수가 10월 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한 청년 창농열차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오른쪽 위).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책 읽는 버스' 앞에서 선물받은 책을 든 채 기뻐하고 있다(오른쪽 아래).

가을과 함께 달렸다

"과연 명품 마라톤"
포토월-포토존 등 참가자들 시선 끌어



10월 15일 경주국제마라톤 참가자 1만 여 명이 출발지인 경주시민운동장을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다.

10월 15일 동아일보가 주최한 경주국제마라톤과 서울달리기대회는 단순한 달리기 이상의 행사였다. 경주국제마라톤은 지난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주시민들에게 재기의 희망을, 서울달리기대회는 젊은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큰 행사가 동시에 개최됐지만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와 스포엑스컴은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행사를 끝마쳤다.

10월 15일 오전 7시 반 경주국제마라톤의 출발지인 경주시민운동장에 모여든 참가자들의 표정에선 더 이상 두려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경주 시내 곳곳에서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경주시민들도 지난해 발생한 기상청 관측 사상 한반도 최대 규모(진도 5.8) 지진의 악몽을 완전히 떨쳐낸 모습이었다.

경주국제마라톤은 경주가 활기를 되찾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 데 큰 역할을 했다. 지진 직후 위험한 곳에서 대회를 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동아일보는 경주국제마라톤을 예정대로 치러 경주의 안전함을 전국에 알렸다.

올해는 '천년고도에서 즐기는 명품 마라톤'이란 점을 적극 홍보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찾도록 이끌었다. 그 결과 올해 경주국제마라톤에는 지난해보다 2000명가량 늘어난 1만여 명의 마라토너가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이날 경주 대회현장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마라톤 코스는 "역시 경주가 최고다"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큼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첨성대와 분황사 등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 문화재들 사이로 힘차게 달렸다. 우승자인 필렉스 키프로티치(케냐)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4초 앞당겨 2시간6분54초의 기록으로 2연패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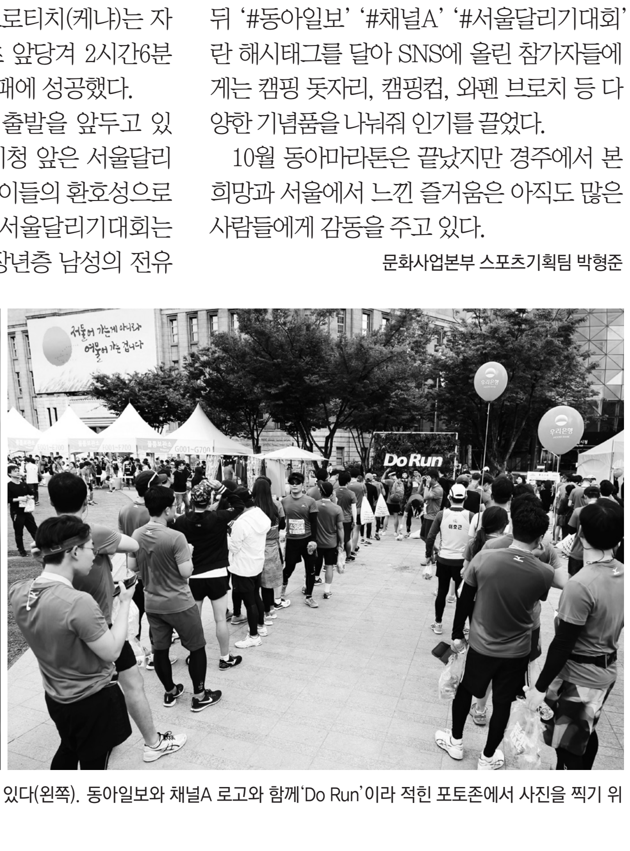
경주국제마라톤이 출발을 앞두고 있던 같은 시각, 서울 시청 앞은 서울달리기대회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환호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달리기대회는 더 이상 마라톤이 중장년층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달리기대회 전체 참가자 중 10~30대 비율이 58%였고, 여성 참가자는 26%에 이른다.

개성 넘치는 젊은이들은 의상부터 남달랐다. 화려한 색상의 헤어밴드와 선글라스, 색색의 스포츠 테이핑은 이제 달리기의 필수 패션 아이템이 됐다. 티셔츠를 리폼해 자신의 개성을 살린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딩팀은 서울달리기대회를 젊음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힐링 감성 캠핑'을 주제로 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서울광장에 동아일보 포토월을 세우고, 옆에는 캠핑장 테마의 포토존을 꾸며 참가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포토월과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을 한 뒤 '#동아일보' '#채널A' '#서울달리기대회'란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린 참가자들에게는 캠핑 돗자리, 캠핑컵, 와펜 브로치 등 다양한 기념품을 나눠줘 인기를 끌었다.

10월 동아마라톤은 끝났지만 경주에서 본 희망과 서울에서 느낀 즐거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박형준



젊은 남녀 한 쌍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동아일보 1면 모양의 포토월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동아일보와 채널A 로고와 함께 'Do Run'이라 적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오른쪽).

“입사 순간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동아일보-채널A 수습 입사자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출생연도 ② 최종학교
③ 입사 후 포부 ④ 요즘 관심사

김정훈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0년
② 고려대 경영학/미디어학
③ “팩트와 현장성으로 무장한 바른(正) 기사로 동아일보 발전에 공(動)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취재해 이 약속 지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④ 체력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체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운동과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3년
② 연세대 사회학/언론홍보영상학
③ 입문 교육 중 안산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신문을 찍어내는 윤전기를 보면서 곧 쥐게 될 펜의 무게를 새삼 느꼈습니다. 지면 낭비, 잉크 낭비하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소중한 사람들을 가급적 덜 서운하게 하면서 수습기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요 근래 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김자현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2년
② 경희대 언론정보학
③ ‘동아일보 기자’라는 자리가 갖는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창간 100주년을 넘어서, 앞으로의 100년을 이어나갈 신뢰를 만드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회사에서 주는 아침밥을 챙겨먹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앞두고도, 밥 챙겨 먹는 게 힘들던 자취생은 다만 행복합니다.

조응형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1년
② 고려대 철학
③ 따뜻한 공감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함께 가진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중량 운동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바벨에 원판을 조금씩 더 얹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여유가 생기면 개인 트레이닝도 하고 싶습니다.

조유라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2년
② 중앙대 사회복지학/영어영문학
③ 보건복지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지 정책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사람을 중요시해 온 동아일보 100년을 잇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수습 생활과 내년에 있을 에픽하이 콘서트 참석을 위해 열심히 체력을 다지는 중입니다.

전채은 / 동아일보
편집국 수습기자

① 1993년
②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
③ 자기소개서에서 밝힌 제 첫 번째 키워드는 ‘리스너’였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조명하는 따뜻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일의 강도에 대한 두려움과는 별개로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워야 할 것들을 무사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식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① 1990년
② 서울대 불어불문학
③ 열심히 부딪치고 깨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단련하겠습니다. 내구력 좋고 흔들림 없는 PD가 되고 싶습니다.
④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살았던 관악구의 우중충한 자취방을 벗어나 ‘힙’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권예림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① 1992년
② 한국외국어대 경영학/영어학
③ 매일 왜 PD가 되고자 했는지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는 PD가 되겠습니다.
④ 아이팟 클래식과 비타민C 메가도스. 정말 비타민C 메가도스를 먹으면 2시간만 자도 멀쩡한 지 실험 중입니다. 아이팟 클래식도 좋은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다정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① 1992년
② 연세대 사회학
③ 누군가에게 삶의 연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릴 적 혼자 보던 방송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듯이.
④ 목욕과 아이돌은 나의 힘! 상암동에 위치한 좋은 목욕탕을 찾습니다. 아이돌이 자주 출몰하면 더욱 좋습니다.

박호신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① 1987년
② 한양대 연극영화학/사회학
③ 냉정과 열정 그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PD가 되겠습니다.
④ 15년이 넘은 아버지의 정든 고물차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차가 될 것 같다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승호 / 채널A
제작본부 수습PD

① 1992년
② 연세대 경영학
③ 1년 뒤의 나는 조금 더 재미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 10년 뒤 나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④ 안경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시력이 나쁩니다. 라식, 라섹 수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 추천해주세요!

권솔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① 1992년
② 고려대 영어교육학
③ 거짓말, 게으름, 내 안의 오만과 싸우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나쁜 기자는 면할 수 있습니다. 이정표는 ‘좋은 기자’입니다.
④ 향수에 푹 빠져있습니다. 저를 닮은 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머리 못 감은 수습기자 취향 저격할 향수를 아시면 알려주세요.

사공성근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① 1990년
② 중앙대 신문방송학
③ ‘First & Best’가 되고 싶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배우겠습니다.
④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깔끔하게 살기 위해 청소용품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다이슨 청소기는 언제쯤 살 수 있을까요.

송영찬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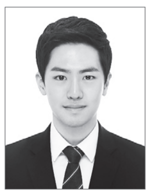
① 1993년
② 연세대 정치외교학/유럽지역학
③ ‘동아는 가족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 일원으로 받아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④ 추운 겨울 수습 기간을 잘 버티기 위해 가성비 좋은 겨울옷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겨울 옷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안보겸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① 1990년
② 동국대 교육학/신문방송학
③ 기자. 이 두 글자를 제 이름 석자 앞에 달기 위해 참 오래도록 달려왔습니다. 더 크게 성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마블’ 덕후입니다. 부산에서는 마블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올 겨울 저는 그 곳이 아닌 경찰서에 있겠죠?

유주은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① 1995년
② 숙명여대 미디어학
③ 현장에서 부딪치며 실하게 영글어가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매 순간 겸손하고 진솔하게 임하겠습니다.
④ 정 들었던 아이폰과 곧 이별합니다. 슬픔도 잠시, 어떤 친구와 새 사랑을 시작할지 고민 중입니다.



정현우 / 채널A
보도본부 수습기자

① 1992년
② 동국대 국어국문학/정치외교학
③ 시청자들과 다같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눈은 키우고, 귀는 넓히고, 발은 빠르게 움직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④ 한동안 편찮으셨던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東友는 몸神이다

중금속 해독에 좋은 도토리묵 구이 만드는 법

중금속, 환경호르몬, 식품첨가물 등 우리 몸에 침입한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몸의 대사순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 배출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몸신〉에서는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되는 도토리묵 구이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도토리의 ‘아콘산’ 성분은 중금속 배출과 활성산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도토리묵 1모, 들기름 2큰술, 고수 1/3단, 집간장 2큰술, 다시마 감식초 4큰술, 현미식초 2큰술, 통깨 3큰술을 준비합니다. 도토리묵 1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들기름 2큰술을 두른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깨끗하게 씻은 고수 1/3단을 다듬은 후 뿌리까지 다집니다. 다진 고수에 집간장 2큰술과 다시마 감식초 4큰술, 현미식초 2큰술, 통깨 3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장을 구운 도토리묵에 끼얹어주면 도토리묵 구이가 완성됩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통해 자세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노수아

① 도토리묵 1모, 들기름 2큰술, 고수 1/3단, 집간장 2큰술, 다시마 감식초 4큰술, 현미식초 2큰술, 통깨 3큰술을 준비한다.

② 도토리묵 1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들기름 2큰술을 두른 팬에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다.

③ 고수 1/3단을 다진 후, 집간장 2큰술과 다시마 감식초 4큰술, 현미식초 2큰술, 통깨 3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④ 구운 도토리묵에 만든 양념장을 끼얹어준다.